

# KBO 역대 최다관중은 착시?

## 베이스볼 브레이크

올시즌 PS 포함 총 관중수 762만명 돌파  
한화 관중몰이·와일드카드 도입으로 흥행  
경기수 늘어 평균관중은 최근 5년 중 최저

KBO의 역대 단일시즌 관중 동원 추세를 살펴보면, '톱 5'가 모조리 최근 5년 사이에 몰려 있다. 2009년부터 7년 연속 단일시즌 600만 관중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1982년 출범 이후 KBO리그는 역대 최대의 흥행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6시즌부터 넥센이 고척스카이돔, 삼성이 신축 대구구장(대구삼성라이온스파크)에 입주하면 이제 10구단 체제에서 안정된 인프라가 구축되기에 흥행 엔진은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 그러나 '양적 팽창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위기론도 제기되고 있다.

### ●정정론 "악재 속속 속에서 선방했다"

KBO의 집계에 따르면 2015년 총 관중수(정규시즌+울스타전+포스트시즌)는 762만 2494명이었다. 역대 최다다. 2011, 2012년 700만 관중을 돌파한 뒤 2013, 2014년 600만

연도	총 관중수 (정규시즌 관중수)	정규시즌 경기당 관중수	정규시즌 경기수
2015	762만2494명 (736만 529명)	1만223명	720
2012	753만3408명 (715만6157명)	1만3451명	532
2011	715만4441명 (681만28명)	1만2801명	532
2014	675만4619명 (650만9915명)	1만1302명	576
2013	674만4030명 (644만1855명)	1만1184명	576

\* 총 관중수=정규시즌+울스타전+포스트시즌.

관중대로 다소 밟혔던 관중수가 반등한 것은 유의미하다. 특히 올 시즌은 4월의 이상한 파와 악천후, 5월말부터 터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 등 최악의 악재가 겹쳤다. 무더위가 오기 전 관중을 최대한 끌어 모아야 했는데, 6월 경기당 관중수가 8000명대(8249명)로 떨어진 것은 치명적이었다. 그러나 7월 경기당 9000명대(9328명)로 회복한 데 이어 8월 1만명선(1만589명)으로 진입한 뒤 9~10월까지 그 수준을 유지했다.

2015년 KBO리그 양대 흥행 메이커는 한화

와 와일드카드였다. 한화는 2014년 47만 5126명에서 2015년 65만7385명의 폭발적인 관중 증가를 기록했다. 원정경기 티켓파워도 대단했다. 또 사상 최초로 5위에게 포스트시즌 티켓을 준 와일드카드 제도는 '포스트시즌 수준을 떨어트린다'는 비판과는 별개로 한화를 비롯해 SK, KIA, 롯데가 시즌 끝까지 몰고 몰리면서 흡인력을 발휘했다.

### ●비관론 "자칫 더 큰 위기 속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관중을 질적으로 따지면 '단순히 역대 최다라는 수식에 현혹돼선 안 된다'는 적신호가 감지된다. 일단 평균관중으로 따지면 2015년 관중 숫자는 최근 5년 중 가장 저조하다. '경기수가 대폭 늘어나 관중이 증가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착시효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심지어 경기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빅마켓 구단인 LG, 두산, 롯데, SK 등은 지난해보다 관중수가 적었다. 이 탓에 '한화가 아니었다면 재앙에 가까운 시즌이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포스트시즌 도중 삼성 일부 선수들의 해외원정도박 파문 등 악재가 속출한 사실도 걸린다. 선수들의 거듭된 도덕성 문제는 자칫 '팬심' 자체가 돌아설 수 있는 뇌관이기 때문이다. 김영준 기자 galzy@donga.com



4월 이상한파와 악천후, 5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 등 각종 악재 속에서도 2015년 KBO리그의 총 관중수는 역대 최다(762만2494명)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기수 증가로 인한 단순 증가에 현혹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산 팬들이 지난달 2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한국시리즈 3차전 도중 열린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 캔자스시티, WS 우승 멤버 '육석가리기'

### ■통신원 수첩

데이비스 등 맹활약선수는 옵션행사  
외야수 곱스·리오스 등에게 결별통보

30년 만에 감격적 우승을 차지한 캔자스 시티 로열스가 일찌감치 월드시리즈 2연패를 향한 육석 가리기에 나섰다. 시장 규모가 작아 재정적으로 여유는 없지만, 우승에 기여도가 높은 선수들에게는 확실한 보상으로 공로를 인정해준다는 방침이다.

캔자스시티는 우선 올 시즌 후반 그래픽 홀랜드의 팔꿈치 수술에 따라 셋업맨에서 마무리로 승격된 웨이드 데이비스에게 800만 달러의 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포스트시즌 동안 1승과 4세이브를 수확한 데이비스의 활약은 압도적이었다. 8경기에서 10.2이닝을 던져 6안타 3볼넷만 허용했을 뿐, 삼진을 무려 18개나 잡아내며 방어율 제로(0)를 기록했다. 월드시리즈 상대였던 뉴욕 메츠 마무리 헤우리스 파밀리아가 볼론 세이브를 3개나 범해 데이비스의 성적은 더욱 돋보였다. 내년 시즌에도 홀랜드의 복귀가 불투명한 까닭에 철벽 불펜의 핵심인 데이비스의 임무는 더욱 막중해질 전망이다.

울스타 유격수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한 알시메스 에스코바르도 내년 시즌 캔자스시티 유니폼을 계속 입게 됐다. 타율 0.257에 그친 정규시즌과 달리 포스트시즌에선 휴스턴 에스트로스와의 디비전시리즈 1차전을 제외한 나머지 14경기에서 모두 안타를 치며 타율 0.329에 9타점의 맹타를 휘두른 그에게 525만달러의 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

월드시리즈 1차전 9회말 1사 후 극적인 동점 홈런을 터트린 알렉스 고든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전망이다. 내년 시즌 1375만달러의 옵션 행사를 고든이 거부하자, 캔자스시티는 신속하게 1년 1580만달러의 조건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갑자루를 켜고 든 입장에서 이번 오프시즌 동안 느긋하게 다른 구단들의 제의를 검토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했다.

반면 명성에 미치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결별 통보가 잇달았다. 외야수 조니 곱스와 알렉스 리오스, 선발투수 제레미 거스리에 결별을 통보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즌 도중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트레이드된 곱스는 12경기에서 홈런 없이 타율 0.167로 부진해 포스트시즌 로스터에도 끼지 못했다. 34세로 곱스와 나이가 같은 리오스도 올 시즌 파워워터로 기대를 모았지만, 타율 0.255에 고작 4홈런만 기록했다. 포스트시즌에선 성적이 조금 향상됐지



웨이드 데이비스

만, 전성기를 넘겼다는 판단에 따라 프리에이전트(FA)로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2013년 15승을 거두며 제임스 실즈(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함께 원투펀치를 이뤘던 거스리는 올 시즌 30경기에 등판해 8승(8패)을 따냈지만, 방어율 5.95로 부진해 포스트시즌 로스터에서 탈락하는 굴욕을 맛봤다. 손건영 스포츠동아 미국 통신원

11일 오후 2시 '무쇠팔 최동원상' 시상식  
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이장 박민식)는 11일 오후 2시 부산에서 제2회 무쇠팔 최동원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는 고 최동원 감독의 가족뿐 아니라 고 장효조 감독, 고 임수혁 선수, 고 조성욱 감독의 자제들까지 참석해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받

는다. 이날 시상식에 앞서 수상자인 두산 유희관을 비롯해 김용철, 한문연, 마해영, 박정태 등 부산야구의 레전드들이 오후 1시부터 50분 동안 사인회를 연다.

### 13일까지 KIA 타이거즈가 초고 야구대회

KIA가 호남지역 야구 꿈나무 발굴과 육성을

위해 9일부터 13일까지 광주 분랑리리야구장에서 광주시야구협회 주관으로 '제12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학교 야구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대회 우승팀인 수창초등학교를 포함한 광주·전남지역 13개 팀이 참가하며, 토너먼트 방식으로 펼쳐진다. 편집 | 정영준 기자 sadzoo@donga.com



OK저축은행 시몬이 8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전력과의 원정경기 도중 세트 랭영우(2번)의 토스에 시간차 공격을 시도하기 위해 뛰어 오르고 있다. 수원 | 김민진 기자 marineboy@donga.com

## 시몬·송명근 42점 합작...OK저축은행 4연승

한국전력 원정경기 3-1로 제압  
현대건설, 도로공사 꺾고 선두



디펜딩 챔피언 OK저축은행이 4연승으로 선두 자리를 단단히 했다.

OK저축은행은 8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2015~2016 NH농협 V리그' 2라운드 남자부 한국전력과의 원정경기에서 시몬(23득점)·송명근(19득점)의 42점 합작에 힘입어 세트 스코어 3-1(19-25 25-20 25-16 25-20) 역전승을 거뒀다. OK저축은행은 7승째(1패), 한국전력은 4패째(4승)를 기록했다.

올 시즌 OK저축은행은 상대의 강한 서브에 큰 약점을 보였다. 최근 우리카드,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 맥없이 첫 세트를 내준 이유였다. 높이 띄워놓고 치기보다는, 빠르고 낮은 토스를 시몬의 속공과 송명근의 잘라 들어가는 공격으로 점수를 내는 공격 패턴 탓에 상대의 서브가 강해질수록 어려움을 겪곤 했다. 이날 맞대결을 앞두고 한국전력 신영철 감독은 승패의 열쇠로 "서브와 리시브"를, OK저축은행 김세진 감독은 "블로킹"을 들었다.

첫 세트 김세진 감독의 우려대로 경기가 진행됐다. 한국전력의 강한 서브에 OK저축은행의 리시브가 흔들렸다. 팀의 장기인 속공은 시

몬이 성공시킨 1개가 전부였다. 한국전력은 불안정한 상대의 공격을 4블로킹으로 막아내며 쉽게 1세트를 따냈다.

2세트에도 여전히 한국전력의 블로킹이 위력을 발휘해 4-2로 앞섰지만, 9개의 범실이 문제였다. OK저축은행은 16-12에서 4연승 실점한 위기의 순간에 나온 송희재의 공격과 원포인트 서브 김천재 덕분에 얻은 4연승 득점으로 주도권을 되찾아왔다. 3세트는 일방적인 OK저축은행의 페이스였다. 한국전력은 첫 세트를 따낸 이후 배구가 눈에 띄게 압전해졌다. 이 바람에 OK저축은행은 잃었던 리듬을 되찾았다.

4세트 도중 신 감독은 "압전한 배구보다는 근성고 투지"를 강조했다. 대체를 되돌리진 못했다. 시몬은 4세트 22-15에서 스파이크 서브로 시즌 2번째(개인 7호·통산 84호)이자 2연승경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시몬은 23득점(3블로킹·3서브·8백어택)을 기록했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이어 벌어진 여자부 경기에선 현대건설이 도로공사를 세트 스코어 3-0(25-18 25-14 25-18)으로 완파했다. 현대건설은 5승2패로 선두를 지킨 반면 도로공사는 4패째(2승)를 안았다. 현대건설 양효진은 5블로킹을 포함해 16득점했고, 황연주(10득점)와 에밀리(13득점)도 뒤를 받쳤다.

수원 | 김홍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 염태영 수원시장 "한국전력 연고지 이전 반대"

한국전력 본사 이전 광주지역 움직임 반발  
훈련장 등 대책 없는 정치권 영향력 논란

최근 광주지역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한국전력 배구단의 연고지 이전과 관련해 수원시장이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8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2015~2016 NH농협 V리그' 남자부 한국전력-OK저축은행전 도중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염 시장은 "수원은 그동안 한국전력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고, 앞으로도 우리 연고지 구단으로서 성장하기를 바란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 지역을 중심으로 연고지를 흔들고 있는데 이는 배구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구단이 가겠다고 하면 막을 수는 없지만, 연고지는 정치권이나 외부의 영향력으로 쉽게 움직이지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수원시와 2015~2016시즌까지 연고지 협약을 맺었다. 염 시장은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수원시와 한국전력 배구단이 연고구단으로 남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동안 팀의 성적이 좋던 나쁘던 항상 꾸준히 연고지 배구팀을 응원해왔다. 지난 시즌 18번의 홈경기 가운데 4번의 만원관중을 기록했고, 다른 연고지보다 평균 1000명 이상 많은 관중을 기록하는 등 지역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팬들의 성원과 열성 속에서 앞으로 계속 우리 배구단으로 발전해줬으면 한다"고 애기했다.

문제는 한국전력의 생각이다. 광주 인근 혁신도시로 모기업이 이전해 배구단만 수원시에 따로 남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 또 V리그의 발전과 지역연고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연고지 이전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다만 최근의 움직임은 V리그의 성공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이 우선이라는 것이 문제다. 배구 관계자는 "시즌 도중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의심스럽다. 선수들의 경기력에도 지장이 있다.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내년까지 수원시에 거주권이 있는 전세권자다. 이런 상황에서 자꾸 다른 곳에서 계약기간을 파기하고 오라고 한다. 내건 조건도 없다.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 손 안대고 코를 풀라고 한다"며 반박했다.

또 한국배구연맹(KOVO)과 다른 구단 등 연고지 이전과 관련해 상의해야 할 당사자들의 의견은 제외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 시즌 자발적으로 김천으로 이전한 여자부 도로공사와 달리, 광주는 염주체육관에서 경기를 하려고 할 뿐 훈련장과 숙소 등 부대시설에 대해 어떤 유인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염주체육관 시설보수 등 비용부담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생색만 내려는 움직임에 한국전력은 쉽게 움직이지 어렵다.

연고지는 쉽게 바뀌어도 안 되지만, 최소한 새로운 연고지를 정하기에 앞서 많은 것을 따져야 하는 복잡한 방정식이다. 지금 같아선 광주가 수원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성원을 보내준다는 보장이 없다. 수원 | 김홍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